가상자산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는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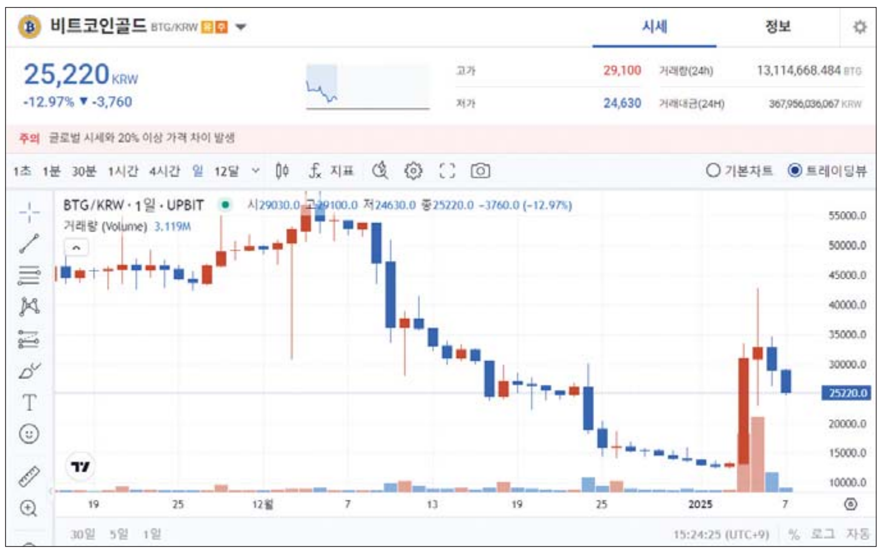
업비트, 비트코인골드 상폐 발표
빗썸·코인원에선 관련 공지 없어
자율규제 한계로 투자자 피해 속출
공동 가이드라인 필요성 높아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예정된 코인을 두고 거래소별 대응이 통일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거래소별 '자율규제'란 이유로 통일성 없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오는 23일 비트코인골드(BTG)를 상장폐지(상폐)하기로 결정했다. BTG 상폐 결정은 업비트가 지난해 12월24일 공식 발표했고 이후 지난 2일 1만2360원까지 하락하면서 이 기간 약 100% 하락했다.

BTG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지만 상폐 결정은 업비트 단독으로 이뤄졌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공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BTG가 상장된 빗썸과 코인원에서는 관련 공지가 없었다.



비트코인 골드가 주말사이 폭등과 폭락을 겪고 있다. /업비트

코인원의 경우 지난해 업비트가 BTG 상폐 결정 후 바로 다음 날 BTG 입금 이벤트를 펼치면서 업비트에서 유출 물량 선점에 나섰다. 당초 지난 2일까지였던 입금이벤트는 조기소진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30일 조기종료 됐다.

이처럼 거래소별 다른 대응 방식으로 인해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 직전 닥사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거래소 형태를 구분 짓지 않고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협업해 공통·자율규제를 만드는 것은 '모범사례'지만 해당 사례안은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거래소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상장 및 상폐를 결정하고 있다.

BTG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해킹 공격을 당해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는 지난 2022년 상폐했다. 이후 BTG 거래량 대부분은 국내거래소에서만 발생해 사실상 김치코인으로 불렸다.

해외거래소에서도 위험성이 높아 상폐하는 상황에서 국내거래소에서는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통일성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BTG는 '상폐밈'으로 인해 지난 4일 1만2600원에서 지난 5일 4만2700원까지 오르면서 주말동안 238% 폭등했다. 현재는 2500만원까지 다시 하락한 상태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단타성 단기 수익을 노리고 일반 투자자들을 끌려들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후 파는 '상폐밈 전략'이다.

코인원과 빗썸 고객들은 별도의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의 상폐 결정을 몰랐고, 결국 세력들에 의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생겼다.

자율규제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별 통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와 제도가 명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투자자 보호가 되지 못한다"며 "금융당국과 닥사가 협업해 자율규제 보다는 공동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투자자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음식배달 서비스 사고 증가세… 車 보험료 상승 불지펴

배달 시장 급성장에 사고도 늘어
안전운전 인센티브 등 대응 필요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동차 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에선 높아진 보험금 청구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2200억달러(약 1771조684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4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은 9.38%로 오는 2029년에는 1조9100억달러(약 2773조3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은 미국 및 중국에서 대규모 소비자 기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주요 음식 배달 서비스의 매출이 전년 대비 총 8%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4489억달러(약 651조9823억6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Chat GPT가 생성한 음식 배달 서비스 및 자동차보험 관련 이미지.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배달 서비스 급성장과 자동차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음식 배달 서비스의 이용률은 지난 2024년 약 26.6%, 이용자 수는 2029년까지 약 25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음식 배달 서비스 확대에 따라 자동차 사고 역시 증가하면서 보험료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 동안 50%나 상승했다.

정수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은 배달 서비스의 급증으로 인해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고 운전 중 스마트폰과 네비게이션 앱의 사용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업체 등록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는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배민 라이더스와 쿠팡이츠 등 6개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기사 5600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사고를 경험한 비율도 15%로 집계됐다.

음식 배달 서비스 사고 증가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배달 서비스 업체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온다.

정수진 연구원은 "음식 배달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높아진 보험금 청구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는 정기적인 교육, 성과 모니터링, 안전 운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운전자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며 "텔레매틱스장치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고위험 운전자를 식별하고 경로를 최적화하면 전반적인 차량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우리銀, 6월 '런던 트레이딩 센터' 신설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대응
해외 거점점포 확대 개편 추진

우리은행은 오는 6월까지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국제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 '런던트레이딩센터'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 런던트레이딩센터는 지난해 7월 설치한 '런던 FX데스크'를 기반으로 외환거래(FX),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자체 자금 운용과, 환전·환헷지 등 고객 거래 업무까지 수행 가능한 해외 거점점포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센터 설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올해 6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추진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소 ▲외국인 투자자 등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형우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신(新) 수익원을 확보하고 비이자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원화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정부의 시장 선진화 정책에 부응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기자

카드 News

우리카드

국립암센터·어린이집 붕어빵 150인분 배달

우리카드가 국립암센터 및 어린이집에 붕어빵을 배달했다

우리카드는 '붕어빵 우리가 쏜다!'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판코니빈혈을 치료 중인 환아의 어머니가 국립암센터 의료진 및 의료사회복지팀에 감사를 전하고자 신청했다. 이어 파란나라 어린이집 근무 교사가 원생 및 인근 관리사무소, 노인정을 위해 응모했다.

사연은 지난해 11월 약 2주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했다. 선정된 국립암센터 및 노원구 파란나라 어린이집에 붕어빵 150인분을 준비한 푸드트럭을 파견했다.

'건담 신한카드' 플레이트. /신한카드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 이용객 최대 3만 포인트 지급

신한카드가 '포인트 플랜' 이용객을 대상으로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자를 위해 최대 3만 포인트를 추가 적립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 대상 카드는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 및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 등 2종이다. 오는 31일까지 포인트 플랜 계열 카드로 ▲백화점 ▲마트 ▲미용실 등 가맹점에서 마이신한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포인트 플랜 플러스 신용카드는 이용 금액의 3%를 2만 포인트까지, 포인트 플랜 신용카드는 이용 금액의 2%를 1만 포인트까지 추가로 적립한다.

같은 기간 포인트 플랜 계열 카드로 신한 쏠페이 및 슈퍼쏠 앱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3%를 카드당 1만 포인트까지 추가로 쌓을 수 있다.

현대카드

개인사업자 세액 조회 세금신고 서비스 지원

현대카드가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를 지원한다.

현대카드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세금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세액 조회부터 신고,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설계했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수집한다. 세금 항목에 맞게 자동으로 분류해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까지 돕는다.

수수료를 내면 세금 신고도 이용할 수 있다.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세무사를 통해 납부할 경우 평균 1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단 설명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